

사회

‘유령 건설기계’ 담보 432억 대출

광주지검, 제작증·차대번호 허위 작성 사기단 검거

‘유령 건설기계’를 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상억)는 19일 있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제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광주 H사 부사장 조모(37)씨와 이사 장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주범인 이 회사 사장 송모(42)씨 검거에 나섰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지난 6

월까지 펌프카, 전굴기 등 수억원씩 하는 건설기계 218대의 제작증과 차대번호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담보로 1대에 1억~2억6000만원씩 모두 432억 원을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 광산구에 건설기계 제작회사를 설립해 기계를 실제 만든 것처럼 제작증과 차대번호를 허위로 작성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0여 만원을 주고 명의대여자 160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기계를 넘긴 것처럼 꾸며왔다.

담보능력을 높이기 위해 명의대여자 등은 다시 조씨 등이 운영하는 건설기계 지입회사에 기계를 지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까지 마치고, 이 유령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은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일부 원리금을 갚기도 했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돈을 빌려 갚는 ‘돌려막기’를 했으며, 나머지는 실제 기계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기계를 놓고 사업자·차량 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던 동안 세무서,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금융기관은 모두 실사를 허술히 해 실제 기계 제작 유무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이 회사 사장 등 대출사기 가담자 6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160명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에서도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추억의 충장축제’ 놀러 오세요
일부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제8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일주일여 앞둔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공원에서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 해 동구 각계 인사, 자원봉사자 등 200명이 발달식을 한 뒤, 축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0대 남녀 4명 자살기도 셋 사망

어제 황금동 옥탑방서 연탄 피워... 1명은 중태

주택가에서 집단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A(67)씨의 3층 주택 옥탑방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각 2명 등 4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A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방 안에는 연탄과 번개탄이 연기가 나고 있었으며, 맥주병과 소주병 등이 있었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 1명과 여자 2명 등 3명은 숨져 있었으며, 최모(34)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시켰다.

집주인 A씨는 경찰에서 “지난 16

일 방을 얻는다며 왔는데 집세 20만 원을 3일이 지나도록 안 내 방에 올라 갔더니 4명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유서는 없으나 방 안에서 연탄과 번개탄, 술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집단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김태원 의원 국감자료
가정폭력 하루 평균 28건 발생

로 보아 이들이 집단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김태원 의원 국감자료
가정폭력 하루 평균 28건 발생

김태원 의원 국감자료
가정폭력 하루 평균 28건 발생

로 보아 이들이 집단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김태원 의원 국감자료
가정폭력 하루 평균 28건 발생

김태원 의원 국감자료
가정폭력 하루 평균 28건 발생

“정전 피해 접수 받습니다”

경실련, 500여명 신고 집단 소송 추진키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발생한 전국적 정전 사태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해 사례를 모집한 결과 500여명의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8일까지 피해를 본 가정이나 상가, 중소기업 등에서 500여명이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단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정 피해 배상을 위해 공익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6일부터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피해자 모집을 계속하면서 원인 조사 결과 및 보상 상황을 지켜보고 집단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개별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범인은 현장 주변에 있다”

한 베테랑 형사가 특유의 직감으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0시40분께 광주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광산경찰 2팀장 윤주창(53) 경위는 현장에 재차 방문, 확인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察했다. 밖의 같은 층에 사는 K(33)씨가 현장 주변을徘徊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용의자는 특정됐나?”라는 등의 질문을 계속해온 것.

윤 팀장은 현장 쪽과 K씨의 목적을 대조해 보고, 일치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윤 팀장은 K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물건을 훔치러 갔다가 저항하자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이날 K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산 원룸 20대녀 살해범 형사에 질문하다 덜미

시 광산구 도산동의 한 원룸 2층에 사는 박모(여·29)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 발견됐지만, 지문은 없었다. 경찰은 살해된 박씨의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했다.

호남고속철 터널 붕괴는 인재

작은비로 지반 취약 고려않고 공사 강행

장성경찰, 수사 일단락

호남고속철도 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광주일보 9월8일 6면)가 일단락됐다.

장성경찰은 지난 1일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40대 근로자가 매몰돼 숨진 사건과 관련, 공사 관계자 10여명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사고 발생 약 6시간 만에 119에 신고가 된 점과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지난 여름 내린 폭우로 약해진 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가 강행된 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터널공사 시공사와 하청 업체 책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일 밤 9시5분께 해당 터널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당시 쇼크리트 작업 중이던 유모(44)씨가 매몰돼 6일만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중부취재본부=김홍희기자 yongho@

“추석 기차표 사세요”

인터넷 사기범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추석 연휴 전 귀성객들을 상대로 기차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박모(25)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31일 인터넷 모 사이트에서 “서울→부산, 서울→목포 KTX 기차표를 판매합니다. 갑자기 일이 있어 고향에 가지 못해 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20명으로부터 180만원 상당을 받아 행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 3월 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398) 김종두



고속도로 통행료

2년마다 5% 인상

한국도로공사가 재무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격년 5%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22조 9000억원 규모로 부채 비율이 94%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이에 재무구조 개선 대책으로 부채경감 20대 과제를 선정했고, 이 과제 가운데에는 통행료 현실화를 위해 2006년부터 묶여온 통행료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5%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휴게시설 임대료의 연평균 상승률을 6%에서 8%로 올리고, 공익목적의 감면통행료를 보전받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차량 데이트’ 납치 착각 신고 해프닝

○“심야에 납치의 차량 데이트 장면이 담긴 사진 현상으로 착각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한 대학교 앞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승합차에 실려 납치됐다”는 신고가 한 택시기사로부터 들어와 수사했으나 결국 ‘오인신고’로 밝혀졌다는 것.

○“해당 기사는 자신의 택시에 탔던 승객으로부터 ‘납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신고했으나 수사 결과 결혼을 앞둔 청년 남녀가 승합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착각한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0월 4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경·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원소장(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아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